

다산포럼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장 개혁의 초점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

이달 초 부총리가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 불가피론’이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면서 빠르게 공감대를 얻고 있다. 모처럼 여당과 야당이 모두 공감과 환영을 표했다. 특히 새누리당 지도부가 그간 최저임금 인상에 소극적이던 태도를 바꾼 것과, 정부 및 청와대와 함께 15일 열린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적정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데 합의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나 ‘부채주도 성장(debt led growth)’으로 대변되던 기존의 경제정책 방향을 틀지 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책들이 현실과 맞지도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점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면 이는 대단한 전환의 계기가 될 만하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작년 8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취임 직후,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으로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가 사실상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실패한 데 이어 나온 두 번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의 세법개정안은 극소수 주식 대량 소유자와 외국인 투자자에게 편향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조세 정의마저 훼손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존의 ‘기업소득(이윤) 주도성장 정책’은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수익성을 증가시켜 투자를 촉진한다는 측면과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화시켜 임금비용을 낮추고 이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높인다는 두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소득주도 성장정책’(국제적으로는 ‘임금주도 성장(wage led growth)’이라고 불린다)은 가계소득을 회복시켜 소비 지출(내수)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투자를 촉진한다는 측면과 임금인상이 한계기업의 퇴출을 통한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을 촉진시키는 촉매가 되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한다는 두 측면을 갖고 있다. 두 정책은 이렇듯 상반된 내리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론이 제기된 배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부총리가 디스플레이를 언급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성장정책으로는 백악이 무효해 정부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정부가 느끼는 위기감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는 국제적으로 정책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39.3%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고, 일본의 아베 총리도 기업들에게 노골적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영국, 독일 등도 임금 인상정책을 내놓았다. 국제노동기구(ILO)뿐만 아니라 세계은행(IBRD)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임금 인상과 가계소득 증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이번에는말로 정책 전환이 있을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해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또 한번 ‘임서비스’정책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우선 정책조합의 모순이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가계 부채의 증가를 방지하거나 조정하는 부채주도 성장정책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은 정책 일관성을 해치고 정책 의지를 의심받게 한다. 또

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추진하겠다는 노동개혁(유연화)정책도 마찬가지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원은 7% 내외에 그치며, 노동자의 90%는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그리고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는 2014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14.5%에 해당한다. 90%는 내버려두고 7%를 대상으로 되지도 않을 정규직 보호 철폐에 매달리는 것은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정책적으로는 뺑뺑짜리다. 그나마 이제 14.5%에 관심을 돌렸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다고 하겠다. 둘째로 기업의 냉소가 문제다. 당장 한국기업의 대표자 삼성전자는 임금을 동결했다. 한국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책임의식이 지극히 낮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잘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대기업이 적정 납품 단가를 보장해 중견·중소기업에게 임금 인상 여력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할 텐데, 경제민주화를 사실상 폐기해 버린 정부의 실행의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이 우려들이 사실이 된다면 또 한 번 정책의 신뢰성은 엄청난 손상을 받게 될 것 같다.

정춘 특·특

뒷모습, 사람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



이진아 목포대 국문과 4학년

한 취업준비생으로 부를 때마다 괜찮다고 답했다. 사는 게 다 똑같이 힘들지 않고 웃음 뒤로 남겼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불립에 끄덕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한 것은 아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 내 이야기 쏟아내고 싶었다는 것을, 달밤 조용히 술에 고백했다. 네임 밸류, 어학연수, 각종 자격증 등 내놓으라는 점수가 매겨질 때마다 스스로 초라하다는 생각이 쌓이고, 제대로 삶을 마주할 용기조차 수그러들었다. 남을 하는 만큼 가리지 뒤쳐지지 않는다. 무엇을 담고 싶은지 본질을 잊은 채 구멍 난 주머니에 무언가를 주워 담았다. 반복 행동이 몹은 자멸하지만, 차라리 마음은 편했다. 한가득 쌓인 손수레를 짊어 지니, 기다리는 길은 끝이 보이지 않는 오르막이다. 사회는 오르막 다음에 내리막이 있다고 사탕을 쥐어 주며 저기 보렴, 저 다양한 일자리와 빼곡하게 두른 집을 가리키며 많다. 그 안에 네 것이 없겠느냐고 회유한다. 첫술에 육십부리지 않겠냐고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토했다. 어찌 그제 당신의 안쓰러움으로만 남아있어야 하는지 반문했다. 세상이 우리를 삼포세대, 평균 임금 88만원, 알바생 혹은 영원

함을 키운다. 위를 향해 수차례 고개를 향하다가 저것은 뭘고, 신 포도라고 위로한 날이 많았다. 대학에 와 정의에 대해 논할 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가 오늘날 필요한 ‘정의(正義)’라고 배웠다. 출발선이 다르기에 상대적이고, 다른 잣대로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공정함이자 정의라고 여겼다. 그 생각은 여전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적소유에 따라 생기는 빈부 격차를 볼 때면 같고 다름은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당연한 것처럼 느끼게 해 씩씩했다. 저마다 사는 이유가 다양하다. 사는 게 녹록지 않고, 당장에 내 코가 석 자이기에 타인의 아픔이나 상처에 무덤덤하다. 이를 두고 나쁘다고 비난할 수 없다. 치열하게 살아야 어디 있겠나. 그러함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소중하게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 있음을 안다. ‘사람’이다. 나만 잘나면 됐지, 익과 실을 따지는 게 똑똑한 삶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나누어 주고, 보듬어주며, 일부러 저주기도 하고, 살갓 스치는 인간미가 더해져서 사람 사는 곳이다. 개인화와 소통의 단절이 더해진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

는 더불어 살려는 모습도 꾸준히 피워내고 있음이 보인다. 협동조합이나 대안학교, 공동체가 그러하다. 우리에게 절실한 게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며 답을 찾아가려는 사람이 움기종기, 여기 모여 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의 뒷모습에 눈을 땔 수 없었다. 먼 친척이자 우리의 이웃이 제발 물어달라고 높은 곳을 올라갈 때, 지하철 통로 옆 책상 하나 끝자락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이야기할 때,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누구보다 잘 알지만, 자동 메시지 마냥 커피 나오셨습니까를 남기는 친구의 지친 표정과 눈 맞출 때, 언어와 피부색, 자라는 문화 환경은 다르나 그와 그녀 또한 같은 동료이자 노동자인 것을 새삼 느꼈을 때. 무엇보다도 그들의 뒷모습은 그림고 익숙한 가족의 등으로 겹쳐 보였다. 그들이 건너온 무거운 하루가 멀치 않은 내 이야기이자 일, 살아갈 사회라는 것을 안 순간 아무렇지 않게 늘 그레 왔던 것과 같이 조용히 지나칠 수 없었다. 온기를 나누며 가까이 머물고자 한다. 그와 그녀의 부채 속에서 나의 존재와 우리를 이야기할 수 없다. 구성원이 있기에 알록달록한 삶의 활기가 더해지고 봄날, 늘 봄이 오는 거다.

기고

공직자는 ‘머슴’ 정신으로 시민을 섬겨야



안용훈 광주시 도시계획과장

사위 남자를 머슴이라고 했다. 남자가 장가들면 처가에 들어가 살면서 가사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재산을 상속받고, 심지어 장인의 성(姓)까지 상속을 받았다. 이는 머슴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주인으로서 가사와 재산, 가통(家統)까지도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무원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 남이 시켜서야 아니라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봉사정신으로 공직자 스스로 각자 업무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필자는 우리 선조의 삶의 지혜를 통해 공직자가 갖춰야 할 자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조상들은 특히, 음력 2월1일(양력 3월20일)은 앞으로 봄이 시작하므로 열심히 일해 달라는 뜻으로 ‘머슴의 날’ 또는 노비일(奴婢日)·일꾼 날이라고 칭하고 배불리 먹고 노는 날로 삼았다. 이는 농부들의 넉넉한 마음이 담긴 농경의례로, 한 해 풍년을 바라는 소망에서 비롯된 농민들의 명절인 셈이다. 이 날 만큼은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평소 대접받지 못했던 머슴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준다. 주인은 술과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해 한턱내고, 머슴들은 풍물예 따라 노래와 춤으로 하루를 즐겼다. 살림이 넉넉한 집에서는 머슴들에게 돈을 주고 장터에서 많것 쓰도록 했는데, 이때 사는 장(場)을 머슴장이라고 했다. 이렇듯 ‘머슴의 날’에는 고된 농사일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 주인이 머슴들에게 배분 작은 배려가 담겨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믿음과 신뢰를 주고 받았다. 머슴은 열심히 일해서 가을에 좋은 결실이 수확되기를, 그리고 주인은 새해를 약속했던 자리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공직자는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할까? 요즘 국민의 머슴은 더 많은 것을 요구받는다. 단순히 노동만 잘해주는 머슴이 아니라 재물과 직위 등으로부터 청렴해야 머슴다운 공직자가 되고 투명한 행정과 소신을 펼칠 수 있다. 또한, 시민이 마음 편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것이 공직자의 책무다. 전직 대통령께서 “공직자는 머슴처럼 일하자”고 한 적이 있다. 이 말 씬은 공무원은 국민에게 열과 성의를 갖고 최선을 다해 공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

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공직자는 자고도 머슴의 자세를 항상 지녀야 하며 마름행세(지주의 위임을 받아 소작인을 관리하는 사람)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도 해석되며, 공직자의 머슴론은 부지런한 근무원, 성실한 공직자의 수준을 넘어서 나라 살림과 민족의 역사, 문화전통 등까지도 책임지는 주인으로서의 공직자를 일컬었을 것이다. 공직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덕목은 시대정신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변할 수 없는 것은 ‘공직자들은 자신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점이다. 시민들도 신뢰받고 존경받는 공직자가 시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모습을 원한다. 주인의 힘을 믿고 ‘갑질’행세를 하는 마름이 아니라, 온갖 힘든 일과 허드렛일을 희생과 봉사로서 마다않는 머슴 같은 자세로 일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시민의 머슴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헌신적인 머슴. 공직자로서 올바른 행동과 정신을 가지고 시민을 받들고,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자치행정을 만들어간다면 더불어 광주시민의 ‘행복의 질’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임을 위한~’ 5·18기념곡 지정 올한 기필코

광주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또 다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광주 지역 338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5·18 역사 왜곡 대책위’는 어제 국회 여야 대표실 등을 방문한 뒤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우리 또한 그동안 수차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촉구해 왔다. 여야 합의로 국회 결의안이 나온 지도 이미 오래인데 이러한 쓸데없는 논란으로 또 언제까지 세월을 보내야 하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0년 5·18 광주항쟁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과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을 위해 당시 전남대생이었던 김종률(56·광주 문화재단 사무처장) 씨가 작곡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후 이 노래는 5·18이 국가기념일이 된 1997년부터 정부 주관 행사에서 공식 제창되고 역대 대통령이 따라 부르기도 했

다. 다만 일부 보수단체의 근거 없는 색깔 공세와 여론 수렴을 핑계로 한 정부의 미지근한 태도로 기념곡 지정이 미뤄지고 있을 뿐이다. 노래란 단순히 음률과 가사의 결합이 아니라 그것이 불렀던 시대의 역사와 그 시대 사람들이 공유하는 체험까지도 아우르는 총체적 융합물이다. 평범한 대중가요도 그러하거늘 민주화를 도와 5·18을 상징하는 노래가 된 것처럼 ‘임을 위한 행진곡’에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터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만큼 5월 광주 정신’을 오롯이 표현하고 있는 노래도 없다. 중요한 것은 이 노래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졌던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함께 부르는’ 노래라는 사실이다. 프랑스혁명 때 만들어진 ‘라 마르세예즈’가 당당하게 프랑스 국가가 된 것처럼 ‘임을 위한 행진곡’ 또한 올해는 반드시 5·18기념곡으로 지정돼야 할 것이다.

느리고 비싼 호남고속철 지역 차별 아닌가

다음달 2일 개통될 호남고속철도(KTX)의 서울 용산~광주 송정 구간 요금과 운행 시간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애초 정부가 발표한 것과 달리 호남선의 구간별 요금이 경부선보다 더 비싼데다 운행 시간도 늘어나 승객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용산~송정역 구간 일반실 성인 기준 요금은 4만6800원, 용산~목포역 구간은 5만2800원으로 기존 KTX 용산~광주역 운임보다 8200원, 8100원 각각 인상된다. 이는 경부선보다 4300원이나 비싼 것이다. 용산~송정역 구간은 304km로 1km당 요금이 154원인 반면 293km인 서울~동대구역은 1km당 145원으로 9원 가량 낮다. 호남선이 11km 길다는 점을 감안해도 4300원의 요금 차이는 이해하기 어렵다. 코레일 측은 용산~송정역 구간의 고속선로 활용이 91.8%, 서울~동대구는 76.2%여서 호남선 요금

이 비싸졌다고 말하고 있으나 고속철 건설비용을 해당 주민에게 떠넘기겠다는 억지로 볼 수밖에 없다. 운행 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코레일은 당초 1시간 33분 만에 주파가 가능하다고 떠들어댔으나 시험 운행 결과, 각 역을 거칠 경우 소요시간이 1시간 33분~2시간 7분 등 평균 1시간 50분이 걸려 사실상 지역민을 기만한 것이나 다름 없다. 용산~광주 송정간 일일 운행 편수 48편(주말 기준) 중 1시간 33분이 걸리는 열차는 단 한 편에 불과하다. 운행 횟수 역시 일일 4편 증편에 그치면서 배차 간격 개선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고속철은 효율성과 효율성이 생명이다. 따라서 정부는 요금을 재조정하고 운행 시간 단축 및 편수를 늘려 지역민의 불편 해소에 나서야 한다.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엄연한 지역 차별이자 호남 사람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無等鼓

조선시대 선비들은 마냥 봄을 기다리지 않았다. 여든한 송이의 매화를 그려 넣는 그림을 벽에 붙여놓고 일년 중 가장 밝이 길다는 동지 이튿날부터 하루 한 송이씩 붉은 칠을 했다. 그림 속 매화송이가 모두 채워진 날, 활짝 열어젖힌 창밖으로 꽃망울을 맺은 매화를 바라보며 살며시 미소짓는 선비의 모습이 떠오른다. 지난해 동지가 12월 22일이었으니 지난 13일이 꼭 81일째 되는 날이었다. ‘구구소한도’라고 한다. 또 선비들은 매화를 볼 결에 두고서 마음의 수양과 정신적 벗을 삼기 위한 방편으로 ‘윤희매’(輪熙梅)를 만들었다. 윤희매는 꿀에서 생긴 밀랍으로 만든 매화를 일컫는다. 며칠 전 국립광주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조선 정화-푸른빛에 물들다’에서 윤희매를 처음 봤다. 밀랍과 매화 가지, 노루털만으로 어떻게 만든 건지 실제 매화 한 가지를 꺼내 화병에 꽂은 양 너무나 흡사해 놀랐다. 선비들은 혹한을 견디고 힘찬 생명력으로 모든 꽃에 앞서 봄을 여는 매화

를 감지하고 고결한 선비의 군자(君子)로 여겼다. 특히 매화를 사랑한 이는 퇴계 이항 선생이다. 퇴계는 자신을 ‘참으로 매화를 아는 사람’(眞知梅者)라고 했고, 평생 72세(壽) 107수의 매화 시를 남겼다. 윤명하던 날 아침에도 제자들에게 ‘매화 분(盆)에 물을 주라’고 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남쪽에서부터 화선(花畵)이 북상하고 있다. 광양 섬진강변에서는 매화축제가(14~22일)가 열려 삼춘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00년대 매화 개화시기가 30년 전인 1980년대보다 최대 보름가량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 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오를 때문이다. 퇴계 선생이 활동하던 400여 년 전과 비교한다면 더욱 차이가 나리라. 꽃이 지기 전에 시간을 쪼개 ‘남명매’와 ‘도산매’ 등 옛 선비들이 사랑했던 고매(古梅)를 찾아봐야겠다. “매화에 봄사리가 알뜰하게 퍼난다 / 알뜰한 그 숲결로 남은 눈을 녹이며 / 더 더는 못 견디어 하늘에 땀을 부린다...”(미당 서정주 ‘매화’ 중에서)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우석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사 2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 로젝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